

이
강
호

세상에
행복이 있을까 아름답게
웃어본 자네 그
영혼은 가련한 것이 스미는데
본능처럼 두렵게
전국 단풍이 때가 아니다.
죽은 그릇은 웃는 듯하다.
그것이 우리들이다.
무엇이 남는가. 반세기 지나는 자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호메로스 <오디세이 / 일리아드>

작품 설명

현대사회의 서로에 대한 미움 갈등 분노 등 복잡한 감정들을 오컬트적으로 표현하였다.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나 이익에 앞선 모습들을 풍자하고자 하였다.